

## 이라크, 원유 생산 계속되고 있으나 판매 문제 처리의 지연으로 재고 누적

-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원유생산은 북부 유전지대를 중심으로 계속되어, 현재 송유관을 통해 터키 북부의 원유수출 항구인 Ceyhan항으로 수송되고 있음.
- 그러나 수송된 원유의 판매 및 수익의 관리를 놓고 UN과 미국 정부간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재고가 계속 증가하여, 지난 3일 Ceyhan항의 원유저장탱크가 거의 저장 능력 상한선에 이른 상태임.

### □ UN 감시단의 승인 문제로 인해 이라크산 원유의 재고 누적

- UN 안전보장이사회(안보리)는 3월 28일, 현재 중단된 기존의 이라크 석유식량프로그램(Oil-for-Food Programme)을 종전 즉시 재개하는 한편, 동 프로그램에 의한 식량, 의약품 등의 인도적 물자의 구입 및 배분을 UN의 관할하에 일임한다는 결의를 통과시켰음.
  - o 그러나 석유식량프로그램과 관련한 석유수출 계약을 이라크 국영 석유회사에게 일임하자는 Cofi Annan 사무총장의 제안은 안보리 이사국들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거부되었음.
- 현재 Ceyhan항의 원유저장탱크에는 약 830만 배럴 규모의 이라크산 원유가 저장되어 있으나, 이라크산 원유는 UN 감시단의 승인 없이는 판매 및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재고가 누적되고 있음.

- 또한 Ceyhan항에 주재하고 있는 이라크 국영 석유회사의 책임자들은 현재 본국과의 연락 두절로 인해 UN의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의 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.

#### □ 전후 이라크의 석유자원 관리를 놓고 미국과 UN 대립

- 현재 미국 정부는 종전 후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미국 기업들이 독점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, 영국 Royal Dutch Shell社의 미국 자회사 회장 겸 CEO를 지낸 Philip Carroll에게 전후 이라크 석유 부문의 재건 업무를 맡아주도록 요청하였음.
- 이에 대해 UN개발계획(UNDP)의 Mark Malloch Brown 사무총장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, UN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가 없다면 제네바 협정에 따라 점령군은 오직 일상적인 행정결정만 내릴 수 있으며, 전후 이라크에 들어설 미국 주도의 임시정부는 국제법상 미국 기업들에게 이라크의 석유산업 현대화 및 운영권 계약을 발주할 권한이 없다고 밝혀, 미국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음.
- UN개발계획의 Brown 사무총장은 독일과 프랑스는 물론 심지어 영국도 전후 미·영 동맹군의 이라크 점령은 “막대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”고 지적하고, 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통한 UN의 관할이나 UN 중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혔음.

전문연구원 오경일 (☎3779-6646)

E-mail : oki1122@koreaexim.go.kr